

미디어오늘 창간 10주년 축하 메시지

미디어오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간 열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론 속의 언론’을 표방한 미디어오늘은 우리 언론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간 때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4년 전쯤에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절이었는데, 미디어오늘은 제 생각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언론이 달라지면 정치도 달라지고 국민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언론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부와 언론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건강한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한 기사들도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미디어오늘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참다운 언론문화 창달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지금보다 좀더

정확한 보도, 올바른 여론 형성에 노력해 간다면 우리가 목표하는 선진한국은 더욱 앞당겨질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거듭 창간 열 돌을 축하드리며, 미디어오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